

박셀바이오, 우수 인재 영입 총력...박사급 연구자 다수 확보

▶ 美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교수 배주은 박사, 공주대학교 특수동물학과 김상기 교수 등 영입

항암면역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박셀바이오(대표 이제중)가 사업 확장을 위해 우수 인재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박사급 글로벌 선도 연구자를 다수 확보했다.

박셀바이오는 최근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교수 배주은 박사를 과학자문위원(SAB, Scientific Advisory Board)으로 영입했다고 24 일 밝혔다. 또한 오랫동안 공동연구를 진행해온 공주대학교 특수동물학과 김상기 교수 역시 공식적으로 공정개발실에 합류하며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 등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배주은 박사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다나파버(Dana-Faber) 암 연구소 연구교수로, 암면역치료 분야 연구에 20 년 이상 종사해온 전문가다. 미국에서 박사후 연구과정(포닥)까지 마치며 면역의학과 종양면역 분야 연구를 수행했고, 시카고에 있는 러쉬 대학(Rush University) 메디컬 센터에서 조교수로 근무했다. 이후 배 박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셀 제네시스(Cell Genesis) 선임 연구원과 온코펩(OncoPep) 공동창업자로서 글로벌 바이오텍에서 면역치료제 개발과 임상연구를 주도했다.

김상기 교수는 20 년 넘게 사람 및 개 NK 세포를 이용한 암면역치료제 개발 연구를 주도해왔다. 전남대학교 수의학 박사 출신으로 공주대학교 특수동물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세계 최초로 개 NK 세포의 체외증폭 기술을 확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박셀바이오와 함께 박스루킨-15 와 3 세대 Vax-NK 를 개발하는 등 오랫동안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두 연구자 외에도 박셀바이오는 최근 여러 분야에서 인재를 영입했다. 공정개발실장으로는 전남대학교 분자 의학과 박사 출신이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암면역치료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재직한 암면역치료 연구 전문가 Vo Manh Cuong 박사를 임명했다. 또한 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는 전남대학교 생명과학 기술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 충북대학교 노화 연구소에서 부교수 등을 역임하며 노화관련 신경질환을 연구한 백민우 박사를 영입했다.

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는 “올해 신규 임상 신청과 파이프라인 확장 등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역량있는 인재 확보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공정개발을 통하여 차세대 파이프라인 개발의 가속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셀바이오는 NK 세포치료제 플랫폼과 CAR 세포치료제 플랫폼, 동물용의약품 플랫폼 등을 보유한 회사로, 오는 4월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란도에서 열리는 AACR(미국암연구협회) 학회에서 CAR 치료제의 전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좌)배주은 박셀바이오 과학자문위원, (우)김상기 박셀바이오 공정개발실 이사